

## 가동률향상과 대외경쟁력 제고에 최우선

### 韓國電力補修株式會社

국내 발전설비 정비전문업체인 한국전력보수(주)는 발전설비의 정상정비 및 시운전정비분야에 참여하여 꾸준한 기술향상과 내실경영을 바탕으로 알찬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발전설비의 신뢰성과 가동률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전문정비기술의 개발, 축적을 통한 대외경쟁력확보를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운영코자 다음과 같이 주요사업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비기술자립 및 개발촉진입니다.

정비업무도 Man Power 시대에서 Brain Power 시대로 전환운영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집약적인 정비업무에서 탈피, 기술집약적인 정비업무로 전환하기 위해 정비전문분야에 대한 Know How의 지속적인 축적, 신정비기술개발, 해외원전과의 상호정보교환 등 Engineering 기능을 사내에 확보하여 명실공히 정비전문회사로서의 기반을 굳혀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영정보시스템(MIS)을 이용한 전산화를 추진하고 기술개발준비금을 적극활용하여 최신정비기법개발, 정비기술확산을 위한 연구발표회개최, 품질활동강화를 통한 전사적 품질관리체제를 유지하여 정비의 신뢰도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90년도부터 추진

해온 기술자립 1단계를 지속추진하여 92년도에 마무리 짓고 작년부터 시작한 2단계의 2차년도 계획을 적극시행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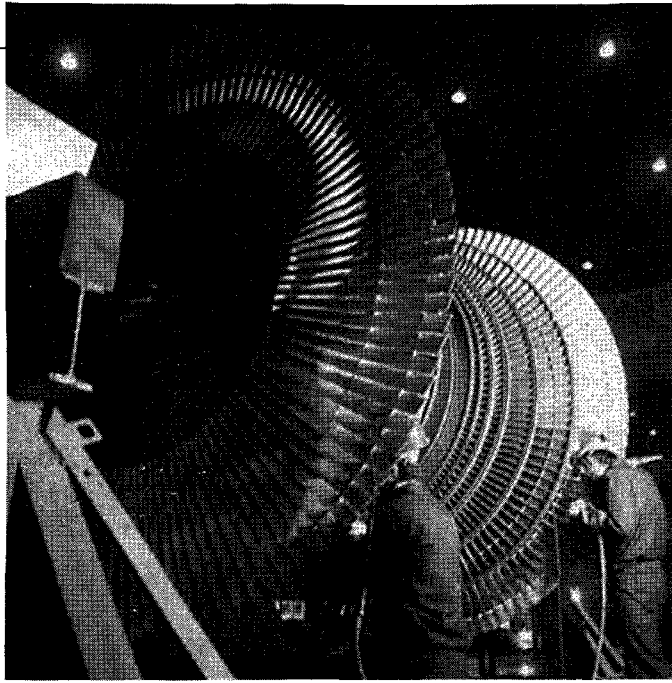
둘째, 책임정비체제의 정착입니다.

정비업무가 시공위주로 발전해 오는 단계에서 제반여건과 상황변화에 따라 책임성 있는 정비수행이 강조되어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비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분야(정비계획, 설계, 공정관리, 진단, 해석 등)와 시공분야의 병행추진을 통한 완벽한 정비체제를 이룩할 것입니다. 91년도에 실시한 원자력 2개 호기의 책임정비체제를 위한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전원전사업소에 확대 시행할 것이며 94년도에는 전정비영역분야에 대한 자립시행을 목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정비조직과 인력의 조직화 및 전문화, 정비기술관리업무의 확대시행, 관련분야의 전문교육강화시행, 정비정보체제관리 개선, 정비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제고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발전설비의 가동률향상입니다.

전력수요급증으로 인하여 예비율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설비용량의 한정으로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고 현재 건설중인 발전소



의 운전시까지의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방법은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 불시정지를 방지토록 고장이 빈번한 취약설비의 중점관리, 인적실수 (Human Error)방지에 전력투구할 것이며 가동중정비 (On Line Maintenance)의 확대시행을 통한 실질적인 계획예방정비기간의 단축을 기해야겠습니다.

계획예방정비공기단축에 있어서는 91년도에 영광 2호기의 10일 단축, 울진 2호기의 14일 단축 등의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올해에도 시행계획의 사전준비철저, 공정관리의 전산화, 생력화장비활용, 편의시설완비에 역점을 두어 지속적인 가동률향상에 한보인의 열과 성의를 다할 작정입니다.

넷째, 방사선피폭저감의 지속추진입니다.

기술개발향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작업자의 방사선안전관리입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는 현행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법적 연간허용선량치인 5렘을 5년간 10렘으로 대폭 하향권고한바 있고 ICRP 신권고치가 조만간 법적으로 채택될 경우에 종사자의 연간 자체관리목표치인 4렘을 92년부터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여 연평균 2렘으로 제한운영할 예정입

니다. 이에 따라서 종사자의 피폭저감에 최선의 노력으로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관리 및 작업교육강화, 피폭관리체제확립, 방사선작업방법개선 등 관리체제의 개선과 정비편의시설설치 등 현장여건개선을 위한 설비개선과 아울러 작업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폭을 저감할 수 있는 신형장비, 공기구확보, 활용 등을 적극 모색할 것입니다.

최근의 전력수요는 고율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하계최대수요는 예측치를 상회하고 있어 단기전력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자체긴급복구대비책을 마련하여 평상시 훈련을 통한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토록 정비인력의 상시 동원체제구축, 전력계통사고시 신속한 대응능력구비 등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취약했던 분야에 더욱 노력하고 새로운 분야에 기술개발과 향상에 주력함으로써 개방화시대에 필요한 국제적 경쟁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전력예비율은 한보(주)가 결정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명실상부한 발전설비정비전문회사로 응비하는 한해가 되도록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합심전력한다면 세계적인 정비전문회사로서의 발돋움할 수 있는 한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